

2007 8월호 제389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월간 주부교실 8월호

발행일 : 2007. 8. 20
등록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윤자
편집인 : 김태연
주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A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홍정욱

비매품

주부교실

2007
통권 제389호 8

생각해봅시다	4	잘한다고 한 짓이/장성숙
실태조사	6	여가활동의 행태 및 의식
	8	출산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 만족도
	10	결혼정보업의 소비자 피해사례
소비자지식	13	온라인 쇼핑할 때 '구매안전서비스' 확인 어떻게 하나요?
고발사례	14	소비자의 소리/곽정자
소비자정보	16	전화금융사기 예방은 이렇게...
알아봅시다	18	레토르트 식품 바로 알기
소비자뉴스	20	해외여행객 65% '여행보험' 가입 안해
식품뉴스	22	수입 생반죽 빵·쿠키 트랜스지방 10배 높아
건강뉴스	24	임신 중 영양부족 아이, 비만 가능성 높아
공트	26	요즘 남자 / 김지연
음식이야기	28	차레상에 올라가는 과일, 영양 듬뿍 '보약' 이었네!
이달의 요리	30	사랑으로 양념한 '주부표' 영양 간식!
생활정보	32	'제수음식 대행업체' 꼼꼼히 따져보고 이용하세요
알뜰상식	34	'상품권·바겐세일'의 숨겨진 마케팅 전략은?
문학산책	35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여행정보	36	녹색 향기 가득한 숲 여행
지부소식	37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2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게시판	50	주부대학 수료식 및 제70기 수강생 모집

<표지사진 : 에너지절약캠페인(경기도 수원시지회, 07. 7. 6), '제8회 울산 사랑 한마음 가족
동요 부르기 대회'(울산광역시지부, 07. 7. 21)>



잘 한다고 한 짓이

장 성 숙/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넘치 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처신을 한다는 것, 그것은 관계의 생명인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가 보다. 별것 아닌 일로 시작해 온 집안이 들썩거리는 일이 얼마 전 측근에서 발생했다.

갓 시집온 며느리 눈에 비친 그 집안 분위기는 썰렁했는지 며느리 댄에는 분위기를 돋워보려고 애를 썼다. 시아버지의 생일날 그냥 거하게 식사나 하기보다는 뭔가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랑으로 며느리는 케이크와 포도주를 준비하는 등 껌쩍함을 떨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예뻐 떠는 며느리에게 시견방지게 설쳐댄다고 편잔을 준 것이다. 자기 댄에는 잘 한다고 애를 썼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소리를 듣자 무안해진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그만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다. 민망해진 시어머니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남편에게 뭐라고 하자, 시아버지의 불뚱은 그리로 튀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아내를 울려놓고 어머니에게 역성 내는 아버지를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아들이 욱하니 성질을 부린 것이다. 이렇게 하여 생일상을 앞에 두고 부자간에 고성어 오간 것이다.

서술이 퍼던 아버지는 아들의 꼴을 안 보겠

다고 난리를 쳤고 아들 또한 더는 못 견디겠다고 버티었다. 그 사이에서 얼굴이 수척해진 어머니는 어떻게든 이일을 수습해달라고 나를 붙잡고 사정을 했다. 며느리 역시 파랗게 질려있었지만 입은 뚱하니 부어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노기등등한 아버지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기는 어려울 듯싶었다. 아들 역시 아버지에게 그동안 놀려 살았던 울분 때문인지 약이 오를 대로 올라있었다. 아무래도 같은 여자로서 자분자분 이야기하기가 더 쉬울 듯싶어 나는 며느리를 만났다. 우선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 얼마나 불편했겠느냐고 위로의 말을 건네자, 그녀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정에서는 가족끼리 무슨 말이든 다 주고 받았는데 시댁의 분위기는 가족끼리 말을 나누지 않아 이상하단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살려보고자 했을 뿐인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것이었구나!' 하며 짚이는 것이 있었다. 왜 시견방지다며 편잔을 받았는지 그 실체를 알 것 같았다. 며느리는 친정 분위기를 더 나은 것으로 여기면서 상

대적으로 시댁 분위기를 시원찮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리고 그 까다로운 시아버지는 그것을 감지했고 마침내 언짢음을 표현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녀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이 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나 역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가 명랑하고 푹푹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녀에게 위아래의 개념이 제대로 박혀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 이야기를 더 시켜보니, 그녀는 친정의 가족관계에서도 부모의 잔소리 속에서 다듬어졌다기보다 오히려 애어른 노릇을 하며 부모의 부족함 점을 살펴주었던 사람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어른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서열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문화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갓 시집온 며느리로서는 일단 시댁 분위기를 따라주는 것이 미덕이다. 그런데 그녀는 습성대로 어른들마저도 자기 생각대로 주도하려했던 것이다.

그녀에게 많은 설명을 해주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행위 양식을 존중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고집하다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간곡하게 일러주었다. 결국 그녀는 자기가 오히려 어른을 이끌어가려 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러한 태도는 특히 남동생에게 부모의 애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신통한 짓을 다 찾아하려는 자신의 역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급한 문제는 집안의 그 불화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상적으로는

웃어른이 아랫사람을 먼저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더 노여움을 타거나 팍팍해지곤 한다. 세파를 헤쳐 나오느라 거칠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세인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인지 아무튼 후덕하기보다 경직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차라리 젊은이들이 고집불통인 어른들을 이해하고 맞춰주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다.

그리하여 나는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나이든 사람들의 성격은 하루 이틀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변하는 것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자신의 취향대로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살 기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노라고, 용기 있는 자만이 사과도 먼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지금은 자식 된 입장에서 시아버지를 그러려니 하고, 시아버지에게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말씀드리며 굽히라고 구슬렀다.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곧바로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사죄를 하고 남편에게도 자기의 허물이 컸었다고 말하자, 그 들썩이던 집안의 회오리도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는 다시금 실감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특히, 위아래의 개념아래 완급을 조절하는 처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다름 아닌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습득되는 것임을 되새겼다. 정말이지 한도 끝도 없이 중요한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다. ■



‘여행 및 운동’으로 여가시간 보내는 응답자 가장 많아

- 경북지역 20세 이상 성인 남·여 500명 대상 -

삶의 질 개선 및 주5일제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변하고 있는 국민 여가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경북도지부는 지난 5월 20일~31일 20세 이상 성인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해 여가생활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다음은 실태조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여가활동의 행태

- 주로 ‘야외활동 및 운동’으로 여가시간 보내고, ‘비용 부담 및 시간부족’ 문제점으로 지적

여가활동의 계획적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대부분이 평일은 별다른 계획 없이 여가활동을 하고 있고, 응답자 46%는 주말, 응답자 52%는 휴가 기간에 계획적으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즐기는 여가활동 종류(표-1)로는 평일에는 ‘가벼운 운동’을, 주말과 휴가기간에는 주로 ‘여행과 같은 야외활동’을 가장 많이 했다.

여가활동에 있어 월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28.1%는 평일에는 ‘5천원~2만원’을 지출하고, 21.4%가 주말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8만원~10만원’, 휴가기간에 지출하는 비용으로는 응답자 63.1%가 ‘14만원 이상’이

라고 답했다.

여가활동의 빈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3.4%는 평일 ‘1주일 2~3회’, 28.2%는 주말 ‘1주일에 1회 이상’, 34.6%는 ‘1년에 2회 이상’ 여가활동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에 있어 실시하는 활동 형태로는 응답자 53.6%가 평일에 ‘개인적으로’ 실시하고 있었고, 주말 및 휴가기간에는 응답자 31%가 ‘단체·동호회모임’을, 18.2%가 ‘학원·헬스센터등록’을 하고 있었다.

여가활동에 있어 동반자로는 평일에는 ‘친구·직장동료’와 함께 여가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이 많았고, 주말과 휴가기간에는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시하는 있는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8.0%(평일), 62.6%(주말), 59.0%(휴가기간)가 ‘대체로 만족’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시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문제점으로는 평일에는 응답자 46.9%가 ‘시간부족’이라고 답했고, 주말 여가활동 이용 응답자 30.9%, 휴가기간 이용자 53.1%는 ‘고(高) 비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그 밖에 ‘여가관련 프로그램·시설부족’ 등을 지적했다.

〈표1〉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종류

구 분	평일	주말	휴가기간
운동 즐기기	159(24.9)	94(12.1)	14(4.1)
친구만나기 등 사교활동	135(21.1)	147(18.9)	30(8.8)
게임, 당구, 바둑, 경마, 카지노 등 오락 활동	55(8.6)	47(6.0)	15(4.4)
어학, 자격증 등 자기능력개발 활동	65(10.2)	29(3.7)	7(2.1)
야외나들이, 여행, 탐사활동	31(4.9)	194(24.9)	186(54.7)
사회, 종교봉사 활동	25(3.9)	58(7.5)	20(5.9)
꽃꽂이, 악기, 댄스, 요가 등 순수 취미활동	48(7.5)	35(4.5)	17(5.0)
휴식·수면, 가사일	121(18.9)	174(22.3)	51(15.0)
합 계	100.0(n=639)	100.0(n=778)	100.0(n=340)

▣ 여가활동의 대한 인식

- ‘기분 전환 및 휴식’에 도움, 응답자 47.4% ‘긍정적’으로 평가

여가활동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답변으로 조사 대상자 52.1%가 ‘재미·스트레스·기분전환’, ‘충분한 휴식’ 16.2%, ‘건강증진’ 11.3% 순으로 응답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늘어난 여가가 본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표-2)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응답자 47.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요인으로 응답자 28.4%는 ‘가족과의 유대감 증가’, 20.8%는 ‘자기계발’로 꼽았고, 부정적 요인으로 응답자 25.1%는 ‘집안일에 대한 부담 증가’, 24.6%는 ‘시간이 남아 즐기지 못한 스트레스 증가’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여가활동 과정에서 지양해야 할 비합리적인 요인으로서 ‘남 따라하기’, ‘경제적 부 과시형’, ‘무질서’, ‘사행성’ 등의 요인 중 사행성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건

전한 오락 활동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 론

조사 분석에 따르면, 구미시민 47.4%가 여가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체로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진출이 많아지면서 여가활동 참여율 또한 남성 49.7%에 비해 여성이 5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가시간을 늘어난 반면, ‘비용부담’, ‘시간부족’ 등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보·시설·프로그램 부족’ 등 국가·사회적 차원의 문제점도 상당 비중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 경북도지부)

'자녀양육문제'로 직장 포기한 적 있고 응답자 88% '육아휴직' 사용 못해

- 충남지역 출산여성근로자 600여명 대상 -

최근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출산여성근로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지부에서는 출산여성근로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 만족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출산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해 안정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 및 복지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다음은 실태조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직장생활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자녀양육문제'로 직장 그만 둔 응답자 34%

출산여성근로자 70%가 종일제, 57%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49%가 '가족의 경제적 여유를 위해', 41%가 '생계유지를 위해'라고 응답해 자아실현(6%)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직장 생활에서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60%가 '보통', 24%가 '만족'이라고 답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61%가 중도에 직장 생활을 포기하거나 포기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며, 34%가 '자녀양육문제'로 직장을 포기했던 경

험이 있었다.

■ 직장생활로 인해 부모로서 '미안함' 갖고, 위탁시 '고(高)비용 부담' 문제로 꼽아

출산여성근로자 56%가 직장생활이 자녀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85%의 응답자가 직장생활 인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직장에서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나고 질문에 56% '조금 그렇다', 17% '매우 그렇다', 16% '그저 그렇다'고 응답해 73% 정도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49%가 취학 자녀를 '보육시설(어린이 집, 놀이방)'에 맡기고, '친정 또는 시댁 쪽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21% 등으로 미취학 자녀 절반 정도가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시 가장 문제되는 사항(표-1 참조)으로 '비용부담' 33%, '안전성' 19%, '애정 없는 양육'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녀 양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 방법으로 '육아휴직' 선택이 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직장보육시설 이용' 26%, '부모나 친정부모에게 맡긴다' 21% 순으로 응답했다. <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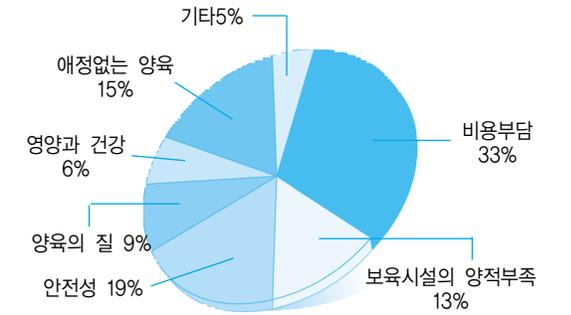
■ 응답자 88% '육아휴직 제도' 이용 못하고, '경제적 지원 및 직장내 탁아시설 확대' 원해

가장 이상적인 양육방법 중 하나인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88%가 '없다'고 답했고,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표2>로는 '경제적인 이유'를 23%로 가장 많이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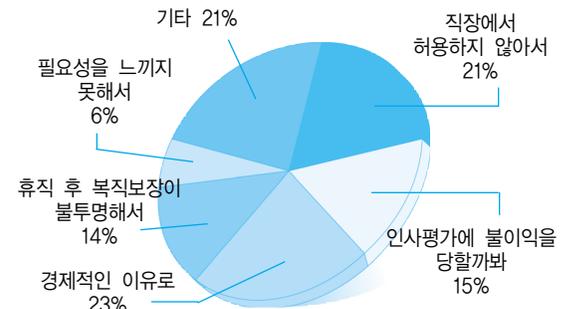
직장에서 보육비 또는 교육비 지급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79% 응답자가 '아니오'라고 답해 직장내 보육 관련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현행 육아제도의 개선점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 40%가 '경제적 지원확대'를 꼽았고, 29%가 '직장내 탁아시설 확대', 14% '휴직기간 확대' 등의 순으로 답했고, 응답자 79%가 일반 근로자의 '가족간호휴직제' 실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여성근로자 직장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반면, 직장생활로 인해 '부모로서의 역할 소홀'에 미안함을 느끼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자녀 위탁시 문제점



<표2>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

특히, 출산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제'를 이용한 경우가 12%에 불과했고, 복직에 대한 불안감 및 불이익 등으로 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해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보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 육아 부담을 직장 여성들만의 몫으로 돌리고 있어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여성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여성 인력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 및 직장내 보육 관련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충남도지부>

‘계약해지 및 환불 거부’ 등 결혼정보업체 횡포 여전해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인식 변화와 함께 결혼정보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하더니 그 피해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본회에 접수된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그 피해 유형과 문제점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결혼정보업은 당국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서 운영자의 자격요건은 물론이고 영업 내용이나 서비스의 수준 및 이용대금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한 표준약관 외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용자의 피해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회에 접수된 내용별 유형으로 살펴보면, 계약의 해제 및 환불문제, 서비스내용에 대한 불만, 부실·불량업체로 인한 피해문제, 이용대금 관련 불만, 국제결혼알선 관련 피해 등으로 나타났다.

■ 각 유형별 고발사례

(1) 계약의 해제 및 환불문제(157건 : 46.7%)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계약의 해제 및 환불문제로서 관련 접수 내용의 46.7%를 차지했다.

계약의 해제 및 환불 문제의 내용은 계약 해제 및 환불 요청에 대한 사업자의 거부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환불금에 대한 불만, 환불처리의 지연에 따른 불만 내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 사례...해지 및 환불 처리 거부

인터넷상으로 가입한 결혼정보업체인데 3일 후에 계약을 취소하려하니 원래 사업자측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아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계속 상대를 소개받을 것을 중용하고 있으나 위압적 태도가 더욱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빠른 해제 처리 바람.

● 처리내용...사업자 측의 잘못이 없다 해도 소비자가 원하면 해제시켜야함을 지적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총가입비의 80%를 환불하는 선에서 해제 처리함.

● 사례...불공정한 임의 약관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여 2회 소개받았으나 모두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니, 계약서상에 2회 이상 소개받은 후에는 해

약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여기에 소비자가 날인도 하였으므로 안 된다고 한다.

● 처리내용...2회 이상 소개받은 후에는 중도해지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불공정 약관이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강제할 수 없음을 지적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가입비의 80% 중 잔여횡수만큼의 금액을 산정하여 환급하도록 함.

(2) 서비스내용에 대한 불만(120건 : 35.7%)

결혼정보업의 서비스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만남의 주선(소개) 과정에서 자격이나 수준 미달의 상대 또는 비회원을 소개하거나, 조건이 좋은 상대를 제시하여 유인한 후 실제로는 다른 상대를 소개시키는 등 성실한 회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 외 약속한 이벤트 행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무실 이전 등 사업자 변경 사항을 알려주지 않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외에, 소비자 자신도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서비스 이행과정에서의 상호 불만족 사례가 많았다.

● 사례...절차 무시 등 신뢰성 부족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기로 하고 일부 금액만 입금한 후 아직 필요한 서류도 보내지 않은 상태인데 갑자기 먼저 미팅부터 하라는 연락을 받음. 미팅에서 만난 상대방 역시 전화로만 우선 가입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의아한 상태였다.

기본적 절차 없이 대충 운영하는 업체로서 신뢰성이 의심되므로 가입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니 거부한다.

● 처리결과...업체에 확인 결과 준비가 부족한

무리한 미팅 주선이었음은 인정하였으나, 원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만남을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 한 것도 사실이므로 1회 소개비용만 부담하고 해지 및 환급 처리함.

(3) 부실·불량 업체로 인한 피해문제(33건 : 9.8%)

현재 자유업으로서 신고나 허가 없이도 영업을 가능한 결혼정보업의 특성상 부실 및 불량업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단체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형사상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마땅한 다른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피해 외에, 수시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불성실한 영업을 계속하거나, 허위·과장된 광고로서 이용자를 유인한 후 부실한 서비스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부실·불량 업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사례...연락 불능업체, 상호 변경 후 영업 계속

1년 기간 동안 7회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가입했으나 2회 소개해 준 다음부터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회비를 환급받을 구제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다.

● 처리결과...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카드회사에 신고하여 항변권 행사를 신청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 결과 해당 업체가 회사명을 바꾸어 다른 곳에서 영업하고 있음이 확인됨. 이에 소비자에 대한 안내 없이 상호 등을 변경하여 영업함은 사기성임을 지적하여 규정에 의하여 환급 처리 함.

● 사례...폐업 피해

성혼될 때까지 횡수 무제한으로 소개받기로

하고 가입했으나 3회 소개 후 연락이 없으므로 해지 및 환급받으려 해도 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 **상담결과**... 업체 폐업으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로 가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아니므로 카드회사를 통한 항변권 행사도 불가하여 결국 형사고발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상담.

(4) 이용대금 관련 불만(16건 : 4.8%)

가입비나 회비 및 기타 비용 등 이용대금에 대한 소비자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가입비(회비)에 대한 불만과 함께 회원 간 회비의 차등 적용 문제 · 과도한 성사비나 추가비용의 요구 등의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 **사례**... 회비 차등 적용 불만

결혼정보업체의 주선으로 만난 상대방과 대화 중 가입비 액수가 서로 다른 것을 알게 되었는데 본인은 200만원에 등록하였으나 상대방은 90만원짜리 회원이라고 한다.

- **처리결과**... 업체에 확인 결과 남·여 별, 정회원·일반회원등의 구분에 따라 가입비가 다르다는 답변이었으나 소비자에게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음을 인정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해지 및 환급처리 함.

(5) 국제결혼알선 관련(9건 : 2.7%)

본회의 지방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국제결혼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주로 동남아 지역 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하는 국제결혼 전문업체에 대한 내용으로서 계약 해지 및 환급요구,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 부실한 서비스이행 내용에 대한 불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사례**... 추가비용 요구

베트남 여성을 소개 받기로 계약할 당시 추가요금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여서 신청했으나 베트남의 규정이 바뀌어서 1차 방문 외에 2차 방문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100만원을 더 내라고 한다.

- **처리결과**... 확인 결과 처음에 내는 비용은 1차 방문하여 성사까지 드는 비용이고, 귀국한 다음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가는 추가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설명이므로 계약 당시 상세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 상 계약을 해지 및 환급 처리하기로 함.

■ **결론**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업자의 문제점으로서 중요정보 제공의 미흡함과 함께 불공정한 규정이나 약관의 사용, 서비스 내용의 부실과 담당 직원의 불성실로 인한 신뢰성 부족, 허위·과장 광고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계약 내용이나 약관내용을 세심히 확인하지 않는 습관으로 인한 정보의 부족 현상과 함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의 철회율이 매우 높고, 지나치게 무리한 기대감 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부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결혼정보업체는 보다 높은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최명렬 / 본회 소비자보호국장〉

온라인 쇼핑할 때 ‘구매안전서비스’ 확인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쇼핑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지만 구매 대금만 챙기고 사라지는 사기성 거래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9월 1일부터 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도입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구매안전서비스’ 란?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그림1 참조)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성거래 등으로 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 주는 서비스로 지난 2006년 4월부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많은 통신판매업자들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외면하거나, 가입했다라도 소비자에게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의 내용을 알리는데 소극적이라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자상거래상 사기성 거래 피해 예방 장치 강화를 위해 올 9월 1일부터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물 초기화면(그림1 참조)과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통신판매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와 그 이용에 관한 소비자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온라인 쇼핑물 선택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을 생활화해 사기성 거래로부터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1> 초기화면 안내 예시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고객님은 안전거래를 위해 현금 등으로 10만원 이상 결제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입한 ○○○의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사실 확인

앞으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시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한 다음 쇼핑물을 이용하도록 한다.

- 초기 화면의 가입 표시 확인
-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사업자 자격 확인
-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사업자 웹페이지 등에서 가입 사실 확인
-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10만원 이상)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선택이 가능한지 확인

〈자료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소리

호텔 계약 후 연락없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호텔측 위약금 과다 청구

내용 김선화 (서울시 종로구)씨는 2007년 7월 27일 제주 K호텔을 계약하고 사정이 있어 이용을 하지 못했는데 객실료 27만원의 8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여, 소비자가 이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처리 호텔 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6월 22일 예약을 했고, 계약당시 소비자 사정으로 하루 전 계약 취소시 30%, 당일 50%, 연락없이 계약 취소한 경우 80%의 위약금 규정이 있음을 고지하였다 한다.

그러나 체크인도 하지 않았는데 경과한 사실만 가지고 과도한 위약금부과는 불공정함은 물론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을 호텔측에 알리고 감액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소비자가 BC카드우수고객임을 감안돼 20%만 지불하기로 합의 처리하였다.

명의로용으로 상조회에 가입돼 본인 모르게 50만원 인출

내용 성시현(대전시 대덕구)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주)유토피아 효가디언 상조에 가입되어 아들 명의의 통장에서 2006년 5월 15일부터 2007년 4월 16일까지 월 20,000원씩 25회 총 50만원이 인출되었다.

아들은 물론 성시현 본인도 상조회에 가입한 적이 없어 명백한 명의도용이므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처리가 안 되고 있어 상담요청했다.

처리 당사자간에 합의 계약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명의를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업체인 (주)유토피아에서 가입과정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해 50만원을 전액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골프장에서 흘러나온 액체류 때문에 의류, 신발 등 오염 피해

내용 권영순(대전시 대덕구)씨는 2007년 6월 23일 대전시내 홈에버에서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

에 세워둔 자동차를 타려고 한 순간, 홈에버 골프 연습장에서 흘러 나온 액체가 주차장에 세워 두었던 소비자의 차량에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차량에 묻어 있던 액체류가 차에 타려던 소비자의 옷과 신발, 자녀의 블라우스에 오염이 되어 홈에버 골프장측은 세탁비로 3만원을 배상해 주었다.

그러나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지만 오염을 제거할 수 없어 바로 골프장에 이의 제기하였지만 시설 담당자의 태도가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응대조차 해주지 않아 상담 의뢰했다.

처리 골프장측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사과과 함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처리를 중재했다. 관련 세탁업 배상비율에 의거해 소비자와 자녀의 의류비 105,850원과 사우나비 8,000원, 세탁비 7,000원 등 모두 120,850원을 배상 합의 처리하였다.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등록한 학원, 조건 맞지 않아 수강료 환불요구

내용 전문대학 졸업자인 황명화(경북 구미시)씨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 기계설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컴퓨터디자인 학원장과 등록 목적에 대한 충분한 면담을 한 후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여 1개월 수강료 26만원을 납부하고 2007년 6월 11일 등록하였다.

수강 기간 중 기계설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하니 전문대 급속과 졸업으로는 자격이 미달이라고 해 접수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

학원에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어졌고, 학원장 잘못으로 시간만 허비했다며 납부한 수강료를 환불 받고자 도움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분야에 대해서 내용과약도 하지 않고, 자격요건에 합당한 것처럼 상담에 응한 학원장의 귀책사유를 들어 소비자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강료 등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됨을 강조해 수강료 전액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해 수강기간의 1/2 경과 후는 수강료 미환급이므로, 1개월 중 잔여일이 몇 일 안되고, 그동안 상당한 지식 습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9만원만을 환급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인터넷 통신 사용 중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취소 및 환급 요구

내용 박길자(경북 김천시)씨는 하나로 통신 인터넷 사용 중 이용료를 자동이체 처리한 후 몇 개월 동안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다가 지난달 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 미가입 'pc닥터'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어 월 3,000원씩 4개월간 이체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나로 통신사에 수차례 항의 후 인터넷 이용요금에서 청구금액을 공제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부가서비스 요금이 계속 청구된다며?구제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 통신사에 확인결과, 소비자 동의 없이 가입된 것을 확인하고 취소 요구 하여 2007년 4월 6일 콜센터를 통해 'pc닥터' 청구 요금에 대해서 5월 요금 청구서에서 부당 인출된 금액을 전부를 감액 처리 받기로 하고 소비자에게 잘못 과금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기로 했다.

(곽정자 / 본회 소비자상담실장)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예방은 이렇게...

최근 전화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유괴 등 협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금전 등을 탈취하는 전화사기로 인해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8월 1일 관계 기관이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화사기(보이스 피싱) 피해 방지 10계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란?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카드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 수법이다.

피싱에 전화 등의 음성(voice)을 더하여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보이스 피싱이라고 한다.

●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1.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미니홈피 및 블로그에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콘텐츠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전화 사기범은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에 올려진 주소록이나 비상연락처 파일을 범죄에 이용하기도 하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개인 메일로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배포하여야 한다.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전화 사기범은 상대방의 전화로 욕설 전화를 계속 걸어 전화기 전원을 끄도록 유도한 후 연락이 되지 않은 틈을 타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한 것처럼 위장하여 송금을 요구한다.

따라서, 자녀의 친구나 교사 등 가족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에 연락 가능한 추가적인 연락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이다. 또한 상대방 유도에 따라 혹은 항의하기 위해 9번 버튼을 눌러 통화를 시도하는 경우 수신자 부담 전화 요금을 부과하기도 하니 절대로 통화를 해서는 안 된다.

5.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떠한 기관도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환불하여 주는 경우가 없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 한다.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전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도록 한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 직원, 카드사, 금융감독원, 경찰 등이라 하면서 카드대금 연체, 카드부정발급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기범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한 후,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하여 금융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이를 주의해야 한다.

9.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도록 한다.

10. 속아서 전화 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각 은행 및 카드회사, 금융감독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료제공 : 정보통신부〉

〈보이스 피싱의 유형 및 사례〉

유형	사례 및 수법
환급	- 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해 현금지급기로 세금 환급 유혹
카드연체·도용	- 카드사·은행·채권추심단을 사칭해 카드요금이 연체됐거나 도용당했다며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입력을 요구
거짓납치·사고	- 자녀의 전화를 미리 꺼놓게 하거나 '납치를 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
범죄 연루	-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됐다고 개인정보 요구
기 타	- 동창회·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후 회비 송금 요구 - 택배회사·우체국이라고 한 후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며 개인정보 요구 - 대학에 추가합격했다며 등록금 입금 요구 - 가전회사·백화점 사칭해 경품행사에 당첨됐다며 계좌번호 요구



레토르트 식품 바로 알기

핵가족화로 각종 레토르트 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용기를 통째로 끓는 물이나 전자레인지에 넣어 조리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 불안감 해소를 위해 레토르트 식품에 대해 알아본다.

▣ 레토르트 식품이란?

‘레토르트’란 실험기구의 일종으로 압력을 주어 고온으로 액체를 증류하는 데 사용하는 금속제 솥이다. 조리된 식품을 밀폐용기에 담고 레토르트에서 고온 살균하여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음식을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한다.

단층 플라스틱 필름이나 금속박 또는 이를 여러 층으로 접착한 봉지에 가공 또는 조리한 카레류, 하이스류, 자장류, 죽, 국, 탕, 찌개, 전골, 수프, 어육 조리 가공품 등의 식품을 충전하고 밀봉하여 가압·가열·살균 또는 멸균한 것으로 직접 또는 간단한 조리방법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보존성이 높고 휴대와 운반이 용이하도록 인스턴트화 한 것을 말한다.

▣ 레토르트 용기 포장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레토르트 식품은 통조림과 달리 납작한 합성수지에 포장하므로 다양한 장점이 있는 한편, 단점들은 장점에 비해 사소해서 레토르트 식품의 소비는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 레토르트 식품을 마음 놓고 먹어도 괜찮을까?

레토르트 식품의 포장재인 합성수지가 열에 약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포장재의 일부가 녹아 음식에 섞이지는 않는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합성수지는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일반적으로 내층 재질로 많이 사용하는 폴리프로필렌은 90~120℃, 고밀도폴리에틸렌은 100℃ 정도면 성질이 변한다. 여기에 첨가물을 넣으면 내열성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다.

음식물은 물의 끓는점인 100℃ 이상으로 온도가 오르지 않는다. 내부의 압력과 물에 섞여

있는 기름으로 끓는점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10℃ 정도가 한계이다.

따라서 내층용 재질이 레토르트에서 고온 처리하는 동안 녹아 음식물에 섞여 들어갈 우려는 없다.

▣ 레토르트 식품 가열시 주의사항은?

레토르트 식품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보통 세 가지로, 끓는 물에 용기째 넣어 가열하는 ‘열탕 가열’, 전자레인지에 레토르트 식품을 용기째 또는 내열성 그릇에 넣어 넣고 조리하는 ‘전자레인지 가열’,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오븐이나 오븐형 토스터처럼 공기를 고온으로 데워 가열하는 ‘오븐 또는 오븐형 토스터’가 있다.

레토르트 식품은 제조과정에서 사람에게 해로운 미생물이 모두 죽으므로 식중독의 위험이 없다. 따라서 레토르트 식품은 마음 놓고 사용해도 안전하다.

레토르트 식품을 더욱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전자레인지 조리 전에 반드시 용기를 확인하다. 레토르트 식품 용기 중에는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다.
- 오븐을 사용할 때는 용기가 고온에 견딜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포장재에 기재된 조리법을 잘 읽고 따른다.

이밖에도 레토르트 식품을 별도의 용기에 담아 사용할 때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일반적인 주의 사항을 지키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들은 정밀한 검사를 거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사용법을 자세히 기재하므로 무엇보다도 제품 포장의 조리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내용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레토르트 용기 포장의 장점과 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식품 포장인 캔이나 병보다 가볍고, 납작한 봉지 모양이라서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 개봉하기 쉽고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로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 편리하다 • 공기와 세균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보존료 등의 첨가물을 넣지 않아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 • 주머니가 납작해 가열·살균할 때 열이 빠르게 퍼지므로 조리시간이 단축되어 색과 향미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 포장비가 저렴하고 제조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금속통 조림 식품을 만들 때에 비해 1/4 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지가 대부분 불투명해 변질된 제품 식별이 곤란하다. • 뽕죽하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포장이 쉽게 파손되어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다.

해외여행객 65% 여행보험 가입 안 해

내국민의 해외에서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여행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해외 여행보험 가입률은 30%대, 즉 3명 중 2명은 여행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해외로 떠나는 여행자들 중 65%가량이 무보험 상태로 출국하고 있어 여행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행보험은 여행기간에만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고액으로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는 저렴하다. 따라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최고보상한도를 높게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단, 여행보험은 천재지변과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80년생(27세)인 남자가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간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고 1억원 한도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5만7670원이다. 2억원 한도로 가입하면 8만1200원, 3억

원 한도의 경우 9만7200원이다.

해외 여행보험은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영업점, 대리점을 통해 가입해도 되지만, 각 손해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 출국 당일 날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미처 여행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여행객들은 공항에서 가입하면 된다.

중국산 완구서 또 납 검출돼

토머스 기차 완구에 이어 또 중국산 장난감에서 과도한 납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일,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CPSC)의 조사에서 과도한 양의 납 성분이 검출된 완구업체 피셔 프라이어의 '빅 버드', '엘모' 등 중국산 완구 83종에 대해 국내 유통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중 상당분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 제품에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대형마트와 완구 전문매장에 이들 제품의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국내에서는 '엘모의 기타', '엘모 영어숫자놀이', '엘모 깔깔 웃음상자', '도라와 행복이 가득한 집', '도라와 함께하는 모험의 세계' 등의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다면서, 중국산 완구에서 계속 안전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페인트를 칠한 중국산 장난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자율안전 확인표시(KPS) 마크가 없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태풍·홍수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여름철 태풍과 홍수피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대상지역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또 현재 정부의 무상지원 대상이 아닌 공장과 상가 등 소상공인 시설과 내부설비, 가재도구 등도 풍수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호우 등 풍수해에 따른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보험이다. 현재는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이 보험가입 대상이다.

보험가입을 위한 조건은 없다. 정부가 일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8~65%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93%까지 지원해준다. 풍수해보험 판매로 보험회사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 전액을 보조해준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와 70%, 90%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연간 2회 또는 12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연재해 발생시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피해 복구비 수준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하다"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받는 등 정부가 보험료를 대폭 지원해주는 만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재당첨 금지, 9월부터 전국 모든 주택 확대

9월부터 터 전국 모든 분양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면 동일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최장 10년간 청약 참여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전국 모든 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공공택지 아파트에 한해 적용돼온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동일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한번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도 아파트 청약 당첨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분양자는 물론, 나머지 세대원도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또 미계약과 당첨 취소 등으로 계약우선권을 갖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계약의사를 밝히고 동·호수를 배정받으면 실제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간주돼 재당첨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당첨 후 일정기간 집을 되팔 수 없는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강화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줄고, 공제율은 상향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향후 3

년간 더 연장된다.

다만 공제대상은 축소하되 공제폭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공제'하고 있는 신용카드 공제제도가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공제'하는 쪽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에 따르면 이렇게 바뀔 경우 신용카드 공제대상 인원은 현재 441만명에서 400만명으로 줄어들고 조세감면 규모도 8680억원에서 797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초 올해 11월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점은 오는 2010년 11월말로 3년 더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소득공제 대상은 급여의 15% 초과분으로 유지하되 현행 15%인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입 생반죽 빵·쿠키 트랜스지방 10배 높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지역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트랜스지방 함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형 마트 등에서 수입 생반죽으로 만든 빵과 쿠키류에는 식품 100g당 3.2~5.7g의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돼 국내 제과점 제품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스츰리 빵의 경우 수입 생반죽으로 만든 제품은 식품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100g당 5.7g으로 국내 제과점 제품의 트랜스지방 함유량 0.5g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국내 제과점 제품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은 대부분의 제품에서 식품 100g당 평균 0.3g으로 나타나 지난 2005년 평균 1.7g보다 8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트랜스지방 함량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커피 마시면 눈꺼풀 떨림 예방 효과 있어

이태리 바리대학 데퍼지오 박사팀의 연구결과, 커피가 눈꺼풀이 불수의적으로 깜박이는 안검경련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흡연이 이 같은 안검경련 예방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연구팀은 166명 환자의 커피와 흡연정도를 연구해 다른 종류의 안면마비 증세를 보이는 228명 환자와 187명의 건강한 대조군을 비교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안검경련과 흡연은 연관관계가 없었던 반면 커피를 마시는 환자의 경우 안검경련 발병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커피의 어떤 성분이 이 같은 효과를 내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카페인이 이 같은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하며 카페인이 두뇌에서 신체움직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기초 신경절 내 수용체로 역할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커피가 안검경련 발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치

료제는 아니라며 늦게 발병하는 안검경련 환자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안 된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브로콜리, 전립선암 걸릴 확률 낮춰

미국 국립항암연구소(NCI)가 지난 4년 동안 2만9천 명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남성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반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잉글랜드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1일(현지시간) 2주에 한 번씩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45% 가까이 줄어들었고, 꽃양배추(콜리플라와)는 악성종양이 생길 확률을 52%까지 떨어뜨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브로콜리와 꽃양배추가 질병 예방에 좋다는 설은 오래 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 두 가지 채소가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항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토마토 같은 채소가 실제로 효능이 있는

지에 대한 논란도 증폭시켰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최소 2주에 한 번은 브로콜리나 꽃양배추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면서, 이들 채소가 암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이들이 DNA의 파괴를 막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녹차 잎 잔류농약 검사 실시, 원산지 단속 강화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녹차 티백을 수거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동서식품과 태평양의 현미녹차 티백 두 종류에서 파라티온이라는 고독성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이에 식약청은 동서식품과 동원F&B의 가루녹차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어 2개 제품에 대해선 전량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20일부터 전남과 경남 등 녹차 재배 주산지에서 생산된

녹차잎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차 인증제품 가운데 100여점을 수거, 파라티온 등 150개 농약성분 잔류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폐기나 용도전환 등 행정처분조치를 내리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녹차제품의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국산임에도 값이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일반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판매 업체에 대하여도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속여 판 곳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은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량음식점 무더기 적발,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

매하거나 위생이 불량한 음식점, 도지역에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한 식당·횃집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음식점과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도내 지역 24개소를 포함해 모두 1,08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도내 업체의 주요 위반내역을 보면 △무신고영업 1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4개소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모 미착용, 보관기준 위반 각각 1개소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영업시설이 영세해 영업자나 종사자들의 위생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업체들에 대해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신 중 영양부족 아이, 비만 가능 높아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리긴스연구소의 피터 글루크먼 박사는 미국국립과학원 회보 최신호에 실린 연구논문에서 임신 중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출산한 아이가 나중에 비만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글루크먼 박사는 새끼를 밴 쥐들에게 먹을 것을 적게 준 결과 새끼들이 나중에 살이 찌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태아가 자궁에서 영양소 부족에 노출되면 출생한 후에도 먹을 것이 모자랄 것을 예상해 대사체계를 지방의 저축과 저장에 고정시키기 때문에 비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태아는 영양부족이라는 자궁의 환경에 적응하게 되며 태어난 뒤에도 자궁에 있을 때의 환경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먹을 것 부족에 대비하게 된다고 글루크먼 박사는 설명했다.

'운동하는 男' 대장암 확률 30% 낮아

적절한 운동이 남성들의 대장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순천향대병원 산업의학과 이경재 교수팀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운동과 대장암 발생의 연관성을 조사해 운동을 많이 하는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운동을 적게 하는 남자들보다 30% 정도 대장암이 적게 걸린다는 사실을 최근 밝혔다.

연구팀은 운동량을 단위활동에 사용한 에너지의 양(MET시간단위)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때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과 적게 한 사람들을 비교했다. 그 결과 운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 남자들의 비교위험도가 0.69(95% 신뢰구간 0.49~0.97)로 나타나 운동이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땀복 입고하는 운동, 오히려 '요요현상' 부추겨

건강과 함께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땀을 많이 나게 하기 위해 땀복을 입거나 주위 온도를 높여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태로 운동을 할 때 많은 땀을 흘린 만큼 몸 안의 수분

이 빠져나가 당장의 몸무게는 줄어 들 수 있지만, 문제는 체내의 수분은 마시는 물로 다시 보충돼 땀으로 인해 줄어든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요요현상'도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더운 여름철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외부의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으로 발생된 열까지 합해져 체온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고 결국 우리 몸은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기에 땀복까지 착용한다면 체온은 더욱 올라가 뇌에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평소 운동을 하며 선풍기나 에어컨 등으로 주위 온도를 낮춰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운동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하루 1시간 빨리 걷기, '파킨슨 병' 진행 늦춰

국내 연구진에 의해 하루 한 시간 정도 빠르게 걷는 운동만 해도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희대 의대 생리학교실 김창주 교수팀은 19일 "파킨슨병에 걸린 쥐를 이용한 실험 결과 걷기운동이 도파민 작동성 신경세포가 죽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걷기운동이 파킨슨병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신경과학저널인 '뉴로사이언스 레터스' 9일자에 실렸다.

연구 결과, 운동을 한 파킨슨병 쥐들은 운동을 하지 않은 쥐들보다 운동기능이 훨씬 적게 줄었고, 운동을 한 파킨슨병 쥐들의 도파민 신경세포 역시 운동을 하지 않은 쥐들보다 훨씬 적게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교수는 "걷기운동이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하루 한 시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유 수유 1년 이상 해야 유방암 예방 효과

유방암 위험을 줄이려면 모유 수유를 1년 이상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예방의학교실 유근영·강대희, 외과 노동영 교수팀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유방암 수술 환자 753명과 다른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대조군) 753명 등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유를 1년 이상 먹어야 유방암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유 수유기간이 1~2년인 경우 11개월 이하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46% 적었고, 2~3.75년(45개월) 먹인 경우 54%나 낮았다.

특히 첫째 아이의 모유 수유기간이 유방암 발생 위험과 연관성이 높았다. 첫째 아이에게 11~12개월 모유를 먹인 경우 1~4개월간 먹인 경우보다 유방암 위험이 61%나 낮았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유방암 발병률을 낮추려면 출산과 모유 수유를 적극 권장하고,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저 프린터, 암 유발 위험

호주언론에 따르면 퀸즐랜드 공대 리디아 모라브스카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수십 대의 레이저 프린터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

과, 거의 30%의 프린터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수준의 토너 같은 미세물질을 공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초미립자들이 폐에 침투하여 담배연기 흡입과 같은 규모로 지속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면서 초미립자가 극히 우려되는 것은 폐에 깊숙이 침투하여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사무용 장비에 대해서도 검사한 결과 전형적인 오피스 빌딩의 환경에서 실내공기 중의 입자농도를 높이는 가장 심각한 입자 방출원은 프린터라는 사실과 프린터의 토너 카트리지가 새것일 때, 그리고 많은 양의 토너가 요구되는 그래픽이나 이미지를 인쇄할 때 특히 입자들이 많이 방출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프린터에 따라 입자 방출 수준의 차이가 크지만, 무엇보다 실내공기 중의 입자들이 흩어질 수 있도록 통풍을 잘 시킬 것을 권고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 프린터 방출 입자를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요즘 남자

나는 서른네 살 먹은 활달한 성품의 주부이다. 차분하
기보다 좀 덜렁대는 편이고 하고 싶은 말 물어두
기보다 뱉어버리는 외향적 기질로 암전한 남편의 속을 자주 불
편하게 해준다. 남편은 이런 나를 거친 야생마나 선머슴 애 같
다고 이죽거리고, 결혼 후 십여 년을 “여성은 조용한 아름다움
과 향기를...” 어찌고 하며 매사에 시시콜콜 간섭을 한다.

나는 그런 남편을 좁쌀아범이라 칭하곤 “사내대장부가 오죽
못났으면 여편네 치맛자락이나 쫓아 다니며 허구헌날 자갈자갈
옹알옹알 잔소리냐”고 되받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알게 모르게
그 남편에게 조금씩 길들여져 가고 있었다.

이날만 해도 여학교 짝 단짝을 만나 피자 남편 험담 자랑을
실컷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장미꽃 몇 송이를 샀다. 남편이 십년
을 두고 험구질 하는 분위기가 없는 여자가 귀에 못이 박혀, 이
날은 끼를 한 번 부려본 것이다. 식탁 위의 백자에 핏빛 장미꽃
을 꽂아 한결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가족이 다모인 저녁식탁에서 그 꽃은 멸시를 당
하고 말았다.

남편은 식탁 위의 꽃병을 덜렁집어 마루 귀퉁이에 처박듯 놓
으며 「이것도 반찬인가?」했다. 그러자 열 살, 일곱 살짜리 아들
형제가 「히히... 꽃 반찬인가봐! 엄마 이것 먹는 거야?」라며 키
들거렸다. 멧없는 엄마, 무드 없다는 여편네가 모처럼 부려본
정성이 10점 효과도 못보고 웃음거리만 되고 말았다.

여느 때처럼 남편은 이 반찬 저 반찬 집적거리면서 뭔가 힘
을 잡으려 눈동자와 혀를 굴리고 있더니 급기야 「시금치는 너
무 삶았고 콩자반은 너무 짜다」라고 했다. 하루도 음식투정 없
이는 밥맛이 달아나는지 매 식사 때마다 투정하고, 도마는 뜨거운 물로 씻고, 행주는 하루에 한 번씩 삶고, 아이들 간식은 직
접 요리해 주고, 음식에 미원 설탕, 소금 넣지 말고, 집 뜰에 꽃
도 좀 가꾸고, 장독 뚜껑 여닫는 거 잊지 말라는 등 쉬임없이

잔소리를 늘어놓는 그것기에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송능은 누렁지가 노릇노릇 적당히 놀러 붙어야 고소한데 이
건 대머리 씻은 물 같구먼...」

남편이 송능을 마신 후 입술을 짹짹이면서 말했다.

납작한 코에 작은 눈 오종종한 입을 가진 왜소한 신체의 그
를 나는 물끄러미 바라보며 ‘대머리 씻은 물 먹어봤어?’ 하려다
가 속으로 땅이 꺼지는 한숨을 죽인다. 사람이 일생동안 배우자
와 사별하거나 언짢게 이별하지 않고도 의무적으로 몇 번 결혼
할 수 있는 절호의 권리가 주어진다면 이후에는 이토록 편협·
소심하고 알고 짜짜한 불품없는 위인은 아예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꿈같은 생각을 거듭하며 쓴웃음을 머금었다.

남의 남편 부러워해봤자 소득도 없는 일일겠지만, 큼직큼직
키 크고 잘생기고 지식 많고, 무엇보다 속통 넓고 뱃심 좋아 사
내답다는 여학교 단짝의 남편이 끝없이 부러워했다.

다음날은 마침 토요일이었다. 아이들의 점심상을 차려놓고 훌
쩍 집을 나섰다.

시계 부랄 같은 남편이 오후 2시경에 귀가할 것을 뻔히 알면
서도, 의도적으로 문간방에 세든 새색시에게 집을 맡기고 나갔
다. 대낮부터 마주 앉아 잔소리를 들을 것이 지겹기도 했지만,
그를 향한 이즈음의 내 감정이 절망적인 상태로 내리달고 있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른 갈 곳이 떠오르지 않았다. 친정집 방문이나 혼자
영화 구경도 내키지 않았다.

질난 남편 가진 여학교 단짝네 집으로 불쑥 찾아갔다. 친구가
몹시 의아로워 했다.

「너 박사 남편이야 느지막히 들어올 거잖아. 우리 좁쌀영감
화롯가에 옛 고아 놓은 듯 대낮부터 뻘하니 들어와 이래라 저
래라 어떻게 저떨구, 지절덜 것이 역겨워서 좀 피해왔다. 너 집

에서 좀 쉬었다 가자구나」

친구가 답답게 조금은 어슬픈 웃음을 머금었다. 나는 뭔가 그
녀에게 반가운 손님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으
나 더 개의치 않고 오밀조밀 아깃자깃 반들반들 잘 꾸며놓은
안방과 거실을 휘휘 둘러보며 보료 위에 벌렁 드러누웠다. 화장
대와 문갑 위에 작품처럼 만들어진 꽃꽂이며 너무 닦아 윤기가
자르르한 공예품 장롱과 우아한 장식품들!

나는 친구의 세련된 안목과 섬세함에 또한 부지런하고 알뜰
함에 감탄했다.

여고 짝에 나 이상 왈가닥이고 거칠던 그래서 별명이 ‘명동깡
패’ 이던 그녀가, 살림 모르는 대범한 남편을 만나더니 도리 없
이 살림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라고 혼자 고개를 주
억거렸다. 친구가 과잉이며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런데 하
필이면 바로 그때, 벨소리가 한번 길게 두 번 짧게 나더니 뜻밖
에도 친구 남편이 퇴근해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친구가 화다닥 먼저 밖으로 뛰어나가며 날더러는 끔찍 말고
방에 있으라고 했다. 나는 안방 창문을 통해 친구의 남편이 양
손에 여러 개의 비닐봉투를 들고 들어와 곧 바로 부엌으로 가
저가는 것을 보았다. 이어서 곧 친구 남편의 소리가 들렸다.

「여보, 오늘은 생굴과 물미역을 샀어! 생굴이 며칠 전보다 더
비싸졌던데. 맛차, 생선이 떨어진 줄 모르고 고기 종류는 하나
도 안 샀네! 여보 나 시장에 한 번 더 갔다 올게」

「아구,아구 쉬- 조용하세요, 손님 왔어요」 팔짝팔짝 뒤통
화 급하게 내뿜는 친구의 소리도 났다. 나는 계속 방안에 있을 수
만 없어, 방문 밖으로 나가 친구 남편인 닥터에게 인사를 했다.

「아이구 어서 오십시오! 이게 얼마만입니까! 자주 뵈시는 못
하지만 집사람한테 매일이다시피 소식은 들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무슨... 얘기를 매일 하던가요?」

「헤헤헤... 민자씨보다 주로 부군 소식이지요. 민자씨 부군께

서는 통속이 넓고 깊고 크고 굵어서 대범하고 사나이다운데, 날
더러는 허구헌날 퇴근 때마다 시키지도 않는 시장이나 바오교
집에 와서는 여자같이 꽃꽂이 따위나 하고 기름 수건으로 장롱
따위나 반들반들 닦고 앉았다고 통박이지요!」

친구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한손으로 남편의 입을 막다가
끝내는 호되게 꼬집은 듯 닥터가 소리를 질렀다.

「아아야- 자기 할 일을 내가 해주면 오히려 고마울 텐데 그
저 매일 날더러 좁쌀남자라는구먼요. 민자씨 부군처럼 사나이답
게 친구들과 어울려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더러는 느
즈막히 퇴근하는 멋도 있어야 자기가 숨통이 트이겠단나요. 그
나저나, 어서 방에 들어가서 집사람과 노십시오. 내 음식솜씨
짹짹합니다! 저녁밥 지어드릴게요!」

「어뵈-」

그러나 키 크고 허우대 좋은 닥터는 나와 친구를 한꺼번에
몰다시피 안방으로 들어가게 했다. 나는 벌린 입을 다물지도 못
한 채 친구를 바라보기만 했다.

내 멍청한 표정에 친구는 할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곤
그냥 피그르르 웃어버렸다.

「들통났으니 숨길 것 없지 - 말도마라, 좁쌀할멈에 비늘구멍
에 시계 부랄이다. 이집 살림 저 남자가 다한다. 닦고 쓸고 만
들고 끊임없이 잔소리 한다! 환자 진료하는 것 보다 살림하는게
더 재밌다는 남자다. 나는 마치 이집에서 바보스런 놈팽이 같고
건달 같고 아기 같고 더러는 얻어먹는 식객 같은 기분이 들 때
가 간혹 있다」

친구가 여전히 넋 나간 듯 서있는 내손을 잡아끌며 그렇게
말했다.

「...똥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나는 그녀의 아귀찬 손힘에 끌려 방바닥에 터벌떡 주저앉으
며, 잣아드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김지연 / 소설가>



경상남도 진주에서 출생, 진주여고,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1967년 「매일신문」신춘문예, 1968년 「현대문학」추천으로 등단했다. 저서로 「산 가시내」, 「산 울음」, 「돌바람」, 「야생의 숲」, 「흑색병동」, 「히포크라테스의 연가」, 「어머니의 고리」 등이 있고 역사소설 「논개」가 있다. 한국소설문학상, 남명문학상, 펜문학상, 월탄문학상, 한국문학상을 수상했으며 경원대·동덕여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은평문인협회 회장, 소설가협회, 저작권협회 이사로 있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 영양 듬뿍 ‘보약’ 이었네!

명절 차례상에 올라가는 대표 과일로 대추, 밤, 감, 배를 꼽을 수 있다. 이들 과일이 조상을 숭배하는 차례상에 오른 이유는 상서로움, 희망, 위엄, 벼슬을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의 의미뿐만 아니라 과일 자체가 지닌 영양분을 알아봄으로써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보자.



대추 : 신경안정 및 노화방지 효과

열매에 비해 씨가 커 왕을 상징하는 대추는 쇠약한 내장의 기능을 골고루 회복시키고 전신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노화를 방지한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대추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일찍 늙는다’는 말이 있다.

대추의 단맛이 긴장을 풀어주는 신경안정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잠을 못자고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나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부리는 사람에게 좋다.

몸이 차고 허약하여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나 갱년기로 인한 정력 감퇴에도 대추차를 진하게 달여 마시면 효과가 크다.

그밖에 이뇨작용을 도와 소변을 원활하게 보

게 하고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켜 주므로 자주 붓는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다.

국내산 대추는 표면에 마모된 흔적이 거의 없고 꼭지 부위와 배꼽 부위가 깊게 들어간 것이 많다. 알이 굵고 껍질이 깨끗해야 하며 윤기가 나는 것으로 손에 쥐고 흔들어 봤을 때 속의 씨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좋은 대추다.



밤 : 장기능 개선 및 숙취해소 효과

한 송이에 씨알이 세 톨이 들어 있어 3정승을 상징한다는 밤은 당질, 단백질, 지방,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 등의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 있는 완벽한 식품으로 병을 앓고 난 사람이나 노인, 어린이에게 적합한 자양식품이다.

밤에는 비타민 C가 토마토만큼이나 많이 들

어 있어 세포를 튼튼히 하고 감기, 빈혈을 예방하여 피부 미용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신장의 기능을 강화해 주고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칼륨도 풍부해 피로회복이나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고 어린아이들에게 부스럼이 났을 때 생밤을 씹어서 붙여주면 효과가 있고, 근육과 뼈가 상했을 때도 회복을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생밤은 차멀미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어 귀성길 자녀들에게 밀 먹여두는 것도 도움이 되며, 말린 밤나무 잎을 면주머니에 넣어 목욕물에 담가 이용하면 땀띠 치료에 좋다.

수입산 밤은 껍질이 깨끗하고 윤택이 많이 나는 반면, 국산 밤은 모양이 둥글고 껍질에 먼지·흙 등이 묻어 있으며 윤택이 나지 않는다.



감 : 저항력 증강 및 고혈압 예방 효과

씨가 8개로 8방백 즉, 관찰사를 의미하는 감은 다른 과일에 비해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몸의 저항력을 높여 주고 점막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꾸준히 먹으면 감기 예방 및 숙취해소, 멀리 예방에 효과가 크다.

특히 감잎으로 차를 끓여 꾸준히 마시면 비타민 C의 작용으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므로 고혈압, 동맥경화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며, 설사를 멎게 하고 배탈을 낮게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감에는 떫은맛을 내는 타닌 성분이 들어있어 과식하면 변비가 생기므로 유의해야

하며, 위장이 찬 사람이나 산후 또는 병을 앓고 난 후에는 몸에 찬기가 들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배 : 이뇨작용 및 항암 효과

씨가 6개로 6판서를 상징하는 배는 옛날부터 변비에 좋고 이뇨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배 속에 들어있는 수분과 석세포 때문이다.

배는 89%가 수분이고 그 밖에 당질, 유기산,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갈증을 해소시키고 가래를 멎게 한다.

담이 나오는 기침에는 배즙을 내 생강즙과 꿀을 타서 먹으면 효과가 있다.

또한 배에는 해열작용이 있어 열에 의한 여러 가지 증세들을 완화시키며 술독을 풀어주고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냉해져 오히려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

최근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식사 후에 배를 먹으면 혈액 내 발암물질인 ‘원-하이드록 시파이렌(1-hydroxypyrene)’의 체외 배출을 도와 항암효과가 크다는 것을 밝혀 내기도 했다.

좋은 배는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양이 좋고 고르다. 과실이 비교적 크고 배 고유의 향기가 많이 나는 것으로 껍질이 얇고 색깔이 맑아 보이는 것을 고르도록 한다.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사랑으로 양념한 '주부표' 영양 간식!

사랑스러운 주부라면 지금쯤 기나긴 장마와 무더위를 견디느라
심신이 지친 가족들에게 어떤 맛난 음식을 해줄까 고민할 것이다.
여름을 나느라 지친 입맛을 살려주는 '주부표' 영양 간식을 만들어보자.

두부스테이크

재료> 두부 1모,
애호박 1/4개, 당근
1~5개, 양파 1/2개, 양
송이버섯 3개, 부침가루 2큰술, 녹말가루 3큰술, 달걀 1개,
돈가스소스 · 식용유 적당량, 소금 · 후춧가루 약간씩



<만드는방법>

- ① 두부는 칼로 으깨어 면보에 꼭 짠다.
- ② 애호박, 당근, 양파는 잘게 다지고 양송이버섯은 모양대로 저며 썬다.
- ③ 두부와 잘게 다진 야채에 부침가루, 녹말가루 2큰술, 달걀,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잘 섞는다.
- ④ 식용유를 두른 팬에 반죽을 동그랗게 얹어 중간 불에서 천천히 익히고 양송이버섯은 한쪽 면에 녹말가루를 살짝 발라 반죽 위에 올

린다.

- ⑤ 두부스테이크를 뒤집어 약한 불에서 속까지 익힌 후 돈가스소스를 뿌려 낸다.

고구마치킨오븐구이

재료> 닭다리 2개, 고구마 3개, 단호박 1/4통, 버터 · 식
용유 · 생강즙 1큰술씩, 다진 마늘 1/2큰술, 다진 양파 3큰
술, 설탕 1큰술, 우유 1/2컵, 빵가루 2큰술, 소금 · 후춧가
루 약간씩, 생크림 3큰술, 모차렐라치즈 10g

<만드는방법>

- ① 닭다리는 살만 준비해 껍질을 벗긴 후 6등분한다.
- ② 팬에 버터와 식용유를 두른 후 닭다리를



올리고 생강즙과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70% 정도 익힌다.

- ③ 고구마와 단호박은 껍질을 벗겨서 얇게 썬 후 찜통에서 쪄낸다.

④ 쪄낸 고구마와 단호박은 다진 양파, 설탕, 우유, 빵가루, 소금과 후춧가루를 넣고 버무린다.

- ⑤ 그라탱 그릇에 버터를 바르고 고구마와 단호박, 닭고기를 썰어 얹은 후 생크림을 끼얹는다.

- ⑥ 맨 위에 모차렐라치즈를 듬뿍 뿌린 다음 200°C로 예열한 오븐에서 10분간 구워 낸다.

연어주먹밥

재료> 밥 4공기, 배합
초(식초 3큰술, 설탕 2큰
술, 소금 2/3작은술), 연
어 200g, 달걀노른자 2
개 분량, 오이 1개, 김 2장, 식용유 · 소금 · 후춧가루 · 통깨
적당량씩



<만드는방법>

- ① 작은 냄비에 배합초 재료를 담고 설탕이 녹을 정도로 데운 다음 뜨거운 밥에 고루 섞어 식힌다.
- ② 연어는 살만 발라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한 후 기름 두른 팬에서 노릇하게 구워 잘게 부순다.
- ③ 오이는 돌려깎아 잘게 썰어 소금에 잠깐 절였다가 물에 헹군 뒤 물기를 닦고 기름 두른

팬에 볶는다. 달걀노른자는 소금으로 간하여 기름 두른 팬에서 스크램블하듯이 익힌다.

- ④ 초밥에 연어와 오이, 달걀, 통깨를 섞은 다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김으로 감싼다.

단호박아몬드맛탕

재료> 단호박 1/2통, 아몬드 4큰술, 소금 · 검은깨 약간
씩, 녹말가루 · 튀김기름 적당량씩, 설탕소스(설탕 · 식용유
3큰술씩)

<만드는방법>

- ① 단호박은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뒤 껍질을 벗기고 사방 3cm 크기로 썰어 소금을 뿌린다.

- ② 단호박에 녹말가루를 뿌린 다음 튀김기름에 넣어 노릇하게 튀기고, 아몬드도 체에 밟쳐 살짝 튀긴다.

- ③ 팬에 분량의 재료를 넣은 다음 젓지 말고 밝은 갈색이 나도록 그대로 녹여 설탕소스를 만든다. 설탕소스를 만들 때 재료를 젓게 되면 식은 후 설탕이 뭉치므로 팬에 올린 채 젓지 말고 그대로 녹여 만든다.

- ④ 튀긴 단호박과 아몬드에 설탕소스를 넣고 고루 버무려 기름 바른 접시에 담은 뒤 검은깨를 뿌린다.



‘제수음식 대행업체’ 꼼꼼히 따져보고 이용하세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부들은 벌써부터 제수음식 마련에 마음이 무거울 수 있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나 노년층 등에게 명절 상차림은 버거울 수밖에 없다. 최근 간편하게 제수음식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등장하면서 주부들의 명절증후군을 덜어주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많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제수음식 대행업체 현황 및 이용시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6인~10인분 기본상차림 17만~20만원 정도, 배달 지연·변질된 음식 등으로 소비자 피해 많아

제수음식 대행업체가 처음 문을 연 것은 지난 98년이다. 가례원을 비롯해 예지원, 다례원 등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제수음식을 대행하는 곳은 50여 곳으로 전국에 분포돼 있으며 대부분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 주문을 받는다.

상차림은 탕국·산적·생선전·백김치·나물·조기·식혜·떡·과일 등 28종의 메뉴가 기본 상차림이며 성인 6~10인 정도 먹을 수 있는 상차림이 17만원~20만원, 25인분은 45만원~50만원 정도이다.

대행업체들이 인기를 끌면서 주문량도 매년 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영세업체들이 난

립해 위생시설이나 배달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명절 때는 보통 하루에 3백상 이상 주문 물량이 들어오게 되는데, 갑자기 물량이 밀릴 경우 영세한 업체는 이를 소화하지 못해 제때에 배달을 못하기 십상이다.

또한 냉장·냉동보관 창고 시설이 열악한 업체에서는 음식 보관을 잘못해 상하기 쉽고,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배달 3일 전부터 음식을 만드는 곳도 있어 음식의 변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 제수음식 대행업체 이용시 주의사항은?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알아둔다

제수음식 대행업체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배달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위험성이 항상 내포돼 있다. 즉, 주문한 상품과 다르거나 배송이 지연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이 계약된 인도 시기보다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이 공급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송 중 음식이 변질되었을 때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음식이 변질되었을 때는 업체에 즉시 알린다

제수음식이 배달되었을 때는 배달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음식 상태를 확인하고, 음식이 변질되었을 때는 업체에 즉시 알린다. 만일 보관하던 중 변질되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배달된 음식이 상했을 때는 즉시 이의제기를 하고 사업자가 인정할 만한 근거(사진)를 남겨둔다. 특히 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의제기 글을 기재해 소비자가 의사 표현을 했다는 증빙을 남겨주고 인쇄해둔다.

■ 변질된 음식은 폐기하지 않는다

간혹 상한 음식을 보관하기가 어려워 사

업자한테 전화로만 항의한 채 음식물을 버리는 소비자가 있다. 증거물이 없으면 보상이 어려우므로 상한 음식은 절대 폐기하지 않는다. 사업자와 음식물 처리에 협의한 후 증거물을 냉동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둔다.

■ 주문시에는 업체에 직접 방문해본다

업체를 선택할 때는 가격이 저렴한 곳보다는 인지도가 있는 곳인지, 게시판에 소비자들의 품평은 어떠한지를 확인한 후 선택한다.

무엇보다 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리시설이나 보관시설을 체크해본다. 조리시설을 둘러볼 때는 소독이나 살균 처리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한다.

특히 가건물이나 무허가건물에서 영업하는 곳은 아닌지 확인하고 포장실과 조리실이 분리돼 있는지 확인한다. 포장시 박스에서 나오는 먼지가 음식물에 그대로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조리 후 냉장 보관한다

명절 음식은 차례를 지낸 후 먹게 되므로 배달된 후에도 몇 시간이 지나서 먹게 된다. 따라서 음식이 변질되기 쉬우므로 배달된 음식은 즉시 포장을 뜯어 탕국은 미리 한번 끓이고 나물과 전은 기름에 한 번 볶아 보관해야 변질을 막을 수 있다.

(내용참조 : 한국소비자원)



‘상품권 · 바겐세일’의 숨겨진 마케팅 전략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불완전하고 번덕스러워 유혹에 약하고 실수하기 마련이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허점을 놓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품권 · 바겐세일’은 이런 허점을 노려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상술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마케팅 전략을 간파한다면 합리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백화점 등에서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면 사은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주고 한다. 현금을 주지 않고 왜 상품권을 주는 것일까요? 여기에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다.

일단 상품권은 현금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실제로 돈은 아니어서 쉽게 써버리게 된다. 돈은 금액은 물론 그 형태도 중요한데 상품권은 돈과 똑같은 구매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돈 같지 않게 생각되기 때문에 쉽게 써버리는 결함이 있다.

더욱이 상품권은 반드시 발행한 백화점 또는 가맹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백화점 입장에서 보면 고객을 다시 매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찾아온 고객의 대부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상품권 액수 이상을 쓰게 된다.

따라서 상품권은 현금을 돌려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하는 소비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상품권 액수만큼 물건을 싸게 구입한다고 생각하여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늘리기도 하고 심지어 상품권을 받을 목

적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조차 있다.

이와 비슷한 판매 전략으로는 바겐세일 전략이나 깜짝세일 전략이 있다.

바겐세일 전략은 행사기간을 설정해서 똑같은 제품을 싼 값에 판다는 점만 보면 가격을 낮추어 판매를 늘리는 매우 일반적인 거래이다.

그런데 신상품은 바겐세일 대상 품목에 들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소비자는 정작 사려고 했던 상품을 제값을 주고 사거나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세일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다. 결국 세일은 소비자들에게 ‘충동구매’를 하도록 부추기는 장치인 것이다.

사전에 세일정보를 알리지 않고 실시하는 깜짝 세일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사용하는 판매 전략이다. 소비자들은 언제 세일이 실시될지 궁금하여 해당 쇼핑몰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게 된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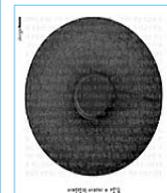
〈자료제공: 한국은행〉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우리문화박물지

이어령/디자인하우스



우리문화박물지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물을 살아있는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건 사물을 보지 않고 그냥 스쳐지나가기 때문이다. ‘이어령의 이미지+생각’이란 부제가 붙은 『우리문화박물지』는 우리와 함께 살아왔지만 우리가 그냥 스쳐지나왔기에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사물들의 이야기다. 이어령 선생은 예를 들면, 갓-머리의 언어, 골무-손가락의 투구, 논갈-팽창주의를 거부하는 선, 다듬어-가장 평화로운 곤봉, 뒤주-집안의 작은 신전, 바구니-뽕도 따고 님도 보고, 바자-치수 없는 옷, 베갯모-우주와 사랑의 꿈, 화로-불들의 납골당 등과 같은 식으로 우리 사물 속에 우리의 마음을 읽어낸다. 이어령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밥 먹을 때 쓰는 젓가락 하나, 옷 입을 때 매는 옷고름 자락, 그리고 누워서 바라보는 대청마루의 서까래-한국인들이 사용해온 물건들 하나하나를 한국인의 마음이 담긴 별자리입니다. 한마디로 그것들은 서명되어 있지 않은 디자인이며 조각이며 책입니다.”

우리의 죽은 자들을 위해

이시영/창비



이 글들은 시일까, 아니면 아주 짧은 산문일까. 이시영은 장르에 대한 질문에는 별로 과념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작품은 지극히 시적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작품은 지극히 산문적이다. 아예 신문기사나 소설의 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작품도 있다. 『우리의 죽은 자들을 위해』는 흔들림이 큰 시집이다. 그 흔들림은 장

르적으로도 그렇고, 주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조에 있어서도 그렇다. 책은 산문과 시 사이에서 크게 흔들리고, 소소한 일상과 거대 담론에서 발췌한 주제에 있어서도 큰 편차를 드러내고, 잔잔한 어조와 분노하는 어조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은 뚜렷하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평화에 대한 관심, 가느다란 연필로 그린 듯 스케치들을 대지와 사람에 대한 믿음 이 조용히, 그러나 곳곳하게 떠받치고 있다.

데카르트의 비밀노트

아미르 D. 악젤 著, 김명주 譯/한겨레출판사



이 책은 추리소설처럼 읽히는 과학 교양서이다. 나는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 교양서를 읽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많은 역사적 식견과 과학적 지식을 담은 탐정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다. 모든 추론의 발단은 위대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가 사후에 남긴 비밀 노트이다. 이 노트는 라이프니츠의 필사본으로 일부만 전해 오고, 이 문서의 내용은 몇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야 밝혀졌다. 라이프니츠가 그토록 데카르트의 유고를 찾아 헤매던 이유, 그 유고에 적힌 암호 같은 기호와 숫자, 그것을 해독한 라이프니츠가 남긴 비밀스런 메모 등의 의미를 풀어가면서 저자는 데카르트의 탄생과 죽음, 욕망과 편력, 사랑과 연애 등을 묘사하는 동시에 17세기 지성사의 흐름과 배후의 어두운 이면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합리주의의 대명사인 데카르트가 정다면체와 관련된 그리스 신비주의, 유대교의 신비주의 전통인 카발라, 연금술과 점성술을 신봉하던 당대의 장미십자기단 등과 맺고 있는 관계가 흥미진진하게 서술되고 있다.

녹색 향기 가득한 숲 여행

나무가 만들어 놓은 숲 속의 작은 세상은 녹색 향기 가득한 또 다른 세상이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가까운 여름 햇살에 심신이 지쳤을 때 나뭇잎 사이로 발걸음을 옮기면 가슴 깊은 곳까지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도심에선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초록 세상으로 떠나보자.

솔향기 찾아 떠나는 강원도 삼척



강원도 금강산과 덕항산 사이로 금강송이 빼곡하게 자라고 있는 준경묘 일대는 환경단체인 '생명의 숲'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

된 곳이다. 붉고 푸른 기운을 동시에 담고 있는 금강송 군락에서의 숲 여행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승휴가 은거하면서 제왕운기를 저술한 곳인 천은사와 범일국사가 창건한 신흥사로 가는 숲길 또한 그 운치를 더한다. 전국 제일의 트레킹코스인 덕풍계곡은 무더운 여름철,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세가 수려하여, 가족 단위 피서지로도 유명하다. 국내에서 가장 웅장하고 신비로우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석회동굴로 알려진 환선굴과 대금굴은 삼척에서 놓쳐서는 안 될 가볼만한 여행지이다.

최고의 소나무가 살고 있는 경북 봉화군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에는 강인한 형질과 웅이 없이 곧고 높게 자라는 최고의 금강소나무 1500여주가 서

식한다. 한강 수로를 따라 나무들이 남벌되던 때 수로가 닿지 않는 불편한 교통여건으로 인하여 살아남았다가 영동선 철도가 건설된 후 춘양역에 집산되어 전국으로 팔려나가며, 최고의 소나무로 평가

받아 그 출산지인 춘양의 이름이 바로 최고의 소나무를 칭하는 대명사가 된 '춘양목'. 수령 20년에서 80년까지의 그 나무들 그득한 숲길 1.5km를 산책하는 숲 여행을 떠나보자. 인근 봉화군 물아면 북지리에는 신라 중·후기 불상조각의 특징을 보여주는 국보201호 마애여래좌상이 있어 봉화 여행에 문화의 향기를 더한다. 한편, 이웃 고장인 영주로 넘어가면 가람배치를 통하여 장엄한 화엄세계를 구현한 명사찰 부석사가 있으며 국내 최초의 사립대학이라 일컬어지는 소수서원도 탐방해 볼 수 있다.

사계절 푸름을 잃지 않는 전남 완도



한 겨울에도 푸름을 잃지 않는 난대림이 가득한 공간으로 알려진 완도 수목원의 숲을 즐기려면 산속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올라야 한다.

산림전시관 앞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가면 계곡을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숲을 즐길 수 있다. 여름 햇빛도 비추지 못할 만큼 하늘을 가린 울창한 숲 속에 들어서면 나무향기 머금은 시원한 바람이 더위를 식혀준다. 산길을 올라 만날 수 있는 것은 수생식물원과 유리로 만들어진 아열대온실. 그 안에는 다양한 아열대 식물과 선인장들이 가득 심겨져있다. 온실을 돌아보고 나서면 수련과 노랑어리연이 피어있는 수생식물원으로 길이 이어진다. 수생식물원에서 정상으로 향해 가면 학술탐방로와 수목원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전국 16개 시·도 지부 232개 시·군·구 지회

부산광역시지부

장례식장 이용 요금 관련 제안회의

주거문화 변화와 의료시설 증가에 따라 장례식장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장례식장별 이용 금액 차이 및 서비스 미흡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시지부**(회장:김기묘)는 7월 5일 본회 강의실에서 회원 70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지역 장례식장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례용품에 대한 가격 및 부대비용 및 요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례식장의 불공정거래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회의를 개최했다.



한 부모 가정 자녀 돕기 바자회

7월 9일~12일 현대백화점 8층에

대구광역시지부

소비자교육

시지부(회장: 손기순)는 지난 7월 12일 달성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인터넷 사용 및 휴대폰의 경제적 사용 방법, 판매원 권유에 의한 총동 구매시 대처 방안 등을 교육했다.



'우리농산물 지킴이 페스티벌' 참석 및 수상

7월 13일 회원 8명이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개최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 '우리 농산물 지킴이 페스티벌'에 참여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교육 및 놀이문화를 체험했고, 김위속과 장혜경 회원이 농림부장관상을 받았다.



'대구광역시지부 지도자 대회' 개최

7월 20일 중앙도서관 지하 시청각

실에서 시지부 회원 및 내외 귀빈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7년도 대구광역시지부 지도자 대회를 개최해 여성 발전을 물론 더 나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5대 생활문화 개선운동 실천사례 공모 및 평등가족모델선정 시상식

7월 20일 중앙도서관 지하 시청각실에서 일반 시민 및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 가정은 양성평등 문화로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5대 생활문화 개선운동 실천사례 공모 및 평등가족모델선정 시상식'이 3회째를 맞이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시상식 및 사례집 발간 배부 등을 비롯해 대구보건대학



배기호 교수는 '주부가 웃으면 세상이 바뀐다'는 주제 강연을 통해 주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축산물 애용 및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캠페인

7월 25일 회원 40명이 2개조로 나누어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정착과 부정유통 근절 및 신고 캠페인을 전개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출발한 1조는 밀리오레, 동아백화점을 거쳐 (구) 한일극장 앞까지, 2조는 삼덕파출소를 출발해 대구백화점을 경유해 2·28기념 중앙공원까지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며 우리 농산물 애용을 유도했다.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7월 25일 회원 40명이 에너지관리공단 대구지사 직원들과 함께 지하철 중앙역 상가 출구 (구)한일극장 앞에서 여름철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인천광역시지부

'인천사랑 우리가 지켜요' 개최

시지부(회장: 한혜자)는 7월 14일 초등학교생과 학부모 90여명과 함께 강화 유적지 및 박물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등 견학을 통해 가족에 형성 뿐 아니라 인천에 대한 애郷심을 갖게 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 및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한 '인천사랑 우리가 지켜요' 행사를 개최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예방 캠페인

계양구지회(회장: 고영숙)에서는 지난 7월 4일 회원19명이 지하철 계산역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요령,

기상변화대비 및 풍수해대비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참여해 시민들에게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시정현장견학

7월 11일 회원 16명이 '07년도 시정현장 견학에 참여해 송도갯벌, 인천대교, 시립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인천의 발전상과 역사를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봉사활동

서구지회(회장: 이민자)는 7월 9일 회원 9명이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30여분의 점심을 준비했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30분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강화군지회(회장: 강혜옥)는 7월 19일 회원 2명이 양사면에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광주광역시지부

생물자원 재활용을 통한 광주 환경사랑 교육 및 캠페인

시지부(회장: 박영희)는 7월 10일 KT 3층 세미나실에서 일반 시민 및 회원 150명을 대상으로 환경사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인 이근우 변호사는 생물자원인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참석자 모두가 '광주 환경 사랑' 운동에 직접 참여해 실천하기로 했다.

교육 후 회원 30명이 동구청 앞에서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 지사장



및 직원, 지하철 공사 직원, 가스 안전공사 직원들과 함께 광주 환경사랑 캠페인을 전개했다.

새로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인지도 제고 및 고효율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7월 10일 KT 3층 세미나실에서 시민 및 회원 150명을 대상으로 환경사랑 교육에 이어 에너지절약 교육을 실시했다.

박근호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 지사장은 에너지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현실 속에서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 의존해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에너지 절약뿐이며, 관련 정보 제공을 비롯해 전기제품 구매시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구매 등 적극적인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후 동구청 앞에서 새롭게 바뀌게 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에 시민들을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사랑 교육 및 견학

7월 18일 일반시민에 이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사랑 교육을 실시했다.

충장중학교 시청각실에서 2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음식쓰레기를 무조건 버리기보다 재활용해 사용하는 방법 및 중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날 중학생 70여명과 함께 생물자원 재활용 중에서 하수도로 가는 폐수를 재생해 상수도로 재활용하는 화순정수장을 방문해 그 실천 사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지부장 회의 개최

7월 24일~25일 전주 관광호텔에서 전국 16개 시·도지부 회장들이 모여 상반기 주부교실 실적에 관한 보고를 비롯해 하반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의 시간을 갖고,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광역시지부

에너지소비효율 관련 교육 및 가두 캠페인

시지부(회장: 송병희)는 고유가 속에서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7월 9일 주부교실 2층 강당에서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소비효율등급라벨인지도 제고 및 고효율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광역시 에너지관리계 윤희종 계장을 초빙해 에너지절약형 제품, 에너지절약마크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재인증제도,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교육 후 회원 40명과 대전시청, 에너지관리공단 총남지사 직원 10명과 함께 대전롯데백화점 부근에서 에너지절약 실천가이드가 담긴 리플렛과 책자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에너지절약 홍보와 함께 적극적 실천을 유도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장 견학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과정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 및 우수성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7월 11일 회원 45명과 함께 친환경 농가인 '한우리 농장' 견학을 실시했다.

유기농, 저농약, 무농약 농산물의 차이점과 유기농 농산물의 재배 및 수확과정을 직접 보면서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주부교실 모자캠프

7월 18일~20일 공주시에 위치한 대전교육연수원에서 회원 및 자녀 590명이 모인 가운데 16번째 '모자캠프'를 개최했다.

바쁜 일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어머니와 자녀가 '행운의 빙고게임', '울동경연대회', '캠핑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경험하면서 모자간 정과 유대감 형성으로 가족애를 더욱 견고히 다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울산광역시지부

'2007 생활체육대전' 단체상 수상

시지부(회장: 박보봉)는 지난 7월 6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1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2007 생활체육대전'에 회원들이 참여해 전개한 봉사활동(행사 안내, 급식 도우미, 교통질서 요원 등)으로 실시한 공로가 인정돼 울산시로부터 단체상을 수상해 감사패를 받아 기쁨을 나눴다.



청소년 자원봉사단 정화활동

청소년자원봉사단이 7월 휴가철을 맞아 봉사단 및 회원 40여명이 함께 정자 바닷가와 진해해수욕장에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 및 정화활동을 실시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울산 가꾸기'에 동참했다.



'제8회 울산 사랑 한마음 가족 동요 부르기 대회' 개최

7월 21일 현대아트홀에서 참가 가족 및 회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8회 울산 사랑 한마음 가족 동요 부르기 대회'를 개최했다. 본선에 진출한 15가족의 노래와 울산국악교실 사물놀이, 삼호 초등학교 합창단 등 우정 출연팀들의 축하 공연으로 아름다운 동요 속에 가족 사랑이 울려 퍼



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화암초등학교 맹근주 가족이 대상, 삼호 초등학교 노건대 가족이 금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지부

에너지절약 캠페인

도지부(회장: 박명자)에서는 지난 7월 2일 임원 및 회원 42명, 4일에는 회원 35명이 각각 수원역 광장에서 나날이 치솟고 있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확인 및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이용에 에너지절약의 기본적인 실천 자세임을 홍보하는 전단지 배포 등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설문조사 및 전시회 개최

7월 3일~4일 팔달구 고등동에 위치한 수원여고에서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생활 속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하고, 피해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전시회를 실시했다.

5일에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전시회를 개최해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친환경 축산물 농가 및 도축장 견학

7월 27일 임원 및 회원 45명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주)도드람푸드를 방문해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과정을 돌아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생산 및 가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번 견학을 계기로 생산농가의 노력만큼 우리 축산물 애용에 앞장서는 소비자가 되어 우리 축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캠페인

수원시지회(회장: 이현숙)는 7월 6일 회원 25명이 팔달문 지동시장 주변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유가와 함께 여름철 전기 사용 증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하절기 에너지절약 우리 함께 실천합시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바른 전기 사용법 등을 홍보하며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할 것을 유도했다.

13일에는 본회 이현숙 회장이 천안 유관순 기념관에서 소비자운동에 선수범한 공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림부장관 표창상을 수상해 회원들의 축하를 받았다.



봉사활동

과천시지회(회장: 양혜숙)에서는 매주 목요일 회장 및 회원 9명이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가족의 사랑이 그리운 아이들에게 엄마의 따사로운 손길을 대신해 목욕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7월 18일에는 회원 10명이 구세군실비요양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고 계시는 노인들에게 목욕봉사를 실시했다.

불량식품 모니터링 실시 및 초청 공연 참가

광명시지회(회장: 장대숙)에서는 7월 19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는 회원 11명이 광명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365개 식품을 불량식품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7월 10일 회장과 회원 17명이 광명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여성주간 행사에 소리와 악기 초청공연에 초대되어 그 동안 땀과 노력으로 쌓은 실력을 발휘했고, 20일에는 한국지역복지회관에서 열린 봉사회 창단식 축하 공연에 초대 받아 난타 공연을 선보였다.

경제교육 실시

안양시지회(회장: 성차순)는 7월 23일 안양시청 6층 대회의실에서 일반시민 및 회원 138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강사로 초빙된 대림대학교 경제학과 김진하 교수는 '21세기 경제의 힘은 여성'이란 주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원

동력이며 주체인 주부의 올바른 선택이 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결혼이주여성 대모(代母) 결연식

성남시지회(회장: 강용선)는 7월 19일 시청과 중앙야회공연장에서 결혼이주여성 대모 결연식을 행사를 개최해 회장 및 회원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엄마, 자매, 이모가 되어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및 고민을 상담해주고, 한국 문화체험 등을 함께 하며 타국에서 겪는 외로움을 달래주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한마음 단합대회

오산시지회(회장: 김형례)는 회원 28명과 오산시청 지역경제과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마음 단합대회를 가졌다.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눈 후 족구 경기를 갖는 등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지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자로서 서로 격려하며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로 했다.



환경 정화 활동

용인시지회(회장: 장복희)는 7월 19일 회장과 회원 15명이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이동면 서리계곡을 찾아가 관광객,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페비닐 및 공병 등을 수거하고 주변 청소 등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강원도지부

에너지절약 교육 및 캠페인
도지부(회장: 김해광)는 7월 23일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일반 시민 및 회원 102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변경될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제도 설명 및 고효율 인증제품 이용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절약의 지름길임을 교육했다. 이후 어린이와 회원 15명이 함께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및 실천방법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활동

태백시지회(회장: 오영희)는 7월 22일 강원랜드 직원과 회원 6명이 함께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계시는 독거 노인 10분을 모시고 삼척 온천으로 나들이를 다녀오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횡성군지회(회장: 김흥기)는 7월 13일 회원 20명이 실로암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음식 대접과 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충청북도지부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교육

도지부(회장: 최광옥)는 7월 23일 충북 여성단체협의회 강당에서 주부 및 회원 103명을 대상으로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요령 및 피해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에너지절약 캠페인

충주시지회(회장: 이상숙)는 7월 20일 롯데마트 터미널 앞에서 열린 충주시 주최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에 회원 15명 참여해 냉방기 사용시 적정 온도 조절, 대기전력 줄이기 등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

을 유도했다.



환경탐사 및 견학

7월 26일 회원 45명이 환경탐사를 위해 충남 당진 화력 발전소를 찾아갔다. 발전소 관계자로부터 환경오염을 줄이는 대체 에너지 개발 현황 및 실생활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 등의 내용을 듣고 화력 발전의 유용성을 알게 되었다.

봉사활동 및 장학금 전달

제천시지회(회장: 장태봉)은 지난 7월 2일 회원 12명이 하소동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 및 모자가정에게 중식 제공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3일에는 회원 28명이 화산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성단체 한마음대회'에 동참해 여성발전을 위해 단체인 화합을 도모한 후 모자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15일 회원 5명이 청풍면 한수리에서 열린 양파축제에 참석해 관광객에

게 제천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고, 27일에는 회원 15명이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소외가정 및 독거노인을 위한 중식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

옥천군지회(회장: 유재숙)는 7월 20일~22일 3일간 금강유원지 일대에서 열린 '옥천 포도 축제'에 회원 20명이 참가해 관광객들에게 지역 및 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했고, 25일 회원 5명이 군서면 장용산 휴양림 야외 음악당에서 열린 '장용산 숲속의 작은 음악회'에 참석해 음악회에 참석한 군민들을 위해 무료 음료 제공 및 안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음성군지회(회장: 김영옥)는 7월 3일 음성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음성 한마음대회'에 회원 30명이 참가해 무료 음료 제공 및 안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증평군지회(회장: 김정자)는 7월 5일 회원 12명이 장애우시설인 머릿돌 은혜원을 방문해 음식을 대접하고, 미용봉사 및 청소봉사를 실시한 후 추가적인 봉사계획과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모임을 갖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단양군지회(회장: 김길성)는 7월 10일 회원 20명이 단양군 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독거노인 및 소외가정을 돕는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운동'에 동참했다. 23일에는 회원 17명이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다리안 유원지 부근에서 환경 정화 운동을 펼쳤다.

괴산군지회(회장: 김문예)는 7월 6일 회원 7명이 재활원인 '에덴 2000'을 찾아가 청소봉사 및 반찬을 전달했다.

여성결혼이민자 무료건강검진 실시 및 봉사활동

영동군지회(회장: 임정선)는 7월 6일 회원 5명이 군내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영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도왔고, 10일 회원 5명이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동읍 주곡리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 및 중식 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충청남도지부

생활 속의 환경호르몬 줄이기 전시회

도지부(회장: 조춘자)는 7월 20일 공주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호

르몬 관련 홍보 전시회를 갖고, 학생들에게 생활 속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류의 사용 자제를 홍보해 궁극적으로 관련물질 감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자 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장 견학

7월 23일 회원 45명이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에 위치한 옥수수농장을 방문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친환경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일환으로 인지도가 높은 옥수수농가, 고추농가 견학을 통해 재배 과정 체험 및 직거래 구입 등을 통해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었다.



2007년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교육

서천군지회(회장: 권세순)에서는 7월 25일 서천군 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초빙된 공정거래위원회 김정호 과장은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을 비롯한 기본권리, 합리적인 지출과 신용관리, 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히, 자녀들의 절약 습관은 어릴 적부터 길러주어야 함을 강조하며 주부들이 자녀들에게 생활 속에서 절약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지부

우리 농산물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

도지부(회장: 최원자)는 7월 11일 전북 도청 제1청사 대강당(3층)에서 회원 90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 확보 교육을 실시해 우리 농산물 애용을 유도했다.



우리 축산물 생산 현장 견학 및 축산물 관련 가두 캠페인

7월 2일 회원 40명이 우리 축산물 생산 현장인 익산 하림 공장을 견학하고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확인 및 직거래 구입의 기회를 가졌다.

20일에는 하나대투증권 3층 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후, 남문을 출발해 중부경찰서, (구)전북도청 광장일대까지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며 우리 축산물 애용 및 원산지 표시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했다.

봉사활동 및 자연정화활동

고창군지회(회장: 전옥선)는 7월 11일~13일 회원 12명이 흥덕리에 위치한 농장을 방문해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익산시지회(회장: 김채숙)는 7월 18일 회원 14명이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익산 경찰서를 방문해 인생의 선배로서 또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전의경들의 고충을 상담하며 위로했다.

김제시지회(회장: 김보배)는 7월 21일 회원 10명이 복남면에 위치한 평강의 집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정읍시지회(회장: 이정림)는 7월 9일 회원 10명이 천변일대에서 쓰레기 줍기 등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무주군지회(회장: 김순득)는 7월 9일 회원 15명이 무주 읍내리에서 열린 반딧불 축제에 참여해 안내 도우미 활동 및 무료 음료를 제공했다.

완주군지회(회장: 최영숙)는 회원 5명이 봉동읍 장기리 천변 일대에서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전라남도지부

임원 간담회 및 월례회의

도지부(회장: 이승자)는 지난 7월 11일 도지부 사무실에서 도지부 및 시·군 지회 임원 40명이 모여 간담회 및 월례회를 갖고 상반기 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와 하반기 사업계획 및 추진을 위한 정보교류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 돕기 기금조성 바자회 및 봉사활동

목포시지회(회장: 민복례)에서는

7월 28일 회원 40명이 목포 평화광장에서 개최된 해양문화 축제에 참여해 지역 내 ‘불우 이웃과 장애인 돕기 기금 조성 바자회’를 개최해 특산물 및 음식류를 판매했다.



장애인 돕기 기능강좌 및 봉사활동

광양시지회(회장: 신행숙)는 7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회원 20이 한 조가 되어 총 4번에 걸쳐 한국장애인 문화협회를 찾아가 편견의 벽을 허물고 재활 자립의 뜻을 키우고 있는 장애우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시꽃공예 만들기’ 강좌를 무료로 마련했고, 사랑을 담은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2일~6일까지 회원 20명이 광양여중·고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지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24일~26일 회원 15명이 광양시내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슈퍼, 편의점 등을 순회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시 주의사항과 판매금지 유해식품에 대한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실시

했다.

경상북도지부

‘여성 소비자 아카데미 강좌’ 수료식

도지부(회장: 이인호)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합리적인 경제생활 영위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5월 4일~7월 6일 10주 과정으로 ‘여성 소비자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해왔다. 지난 7월 6일 강좌를 끝으로 구미시 청년회의소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친환경 농산물·축산물 생산 현장 견학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친환경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7월 6일 회원 45명이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분도농원을 방문해 친환경 재배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우수성 및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었고, 이후 친환경 농산물 홍보 및 애용에 동참하기로 했다.

11일 회원 45명은 한우 농가인 용호농장 견학을 통해 위생 처리 생산

과정 및 육류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정보 습득으로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 축산물 애용 및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가두 캠페인

7월 30일 회원 80명이 재활용전시 판매장을 출발해 국민은행 사거리, 상공회의소 앞 사거리까지 축산물 관련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 홍보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 확인만이 우리 축산물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여성대회 참석 및 봉사활동

김천시지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7월 4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07 김천시 여성대회’에서 이분회 회원이 모범상을 수상했고, 회원 10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월례회 및 '이주여성과의 만남의 날'

영천시지회(회장: 이길자)는 7월 10일 강변 한정식 식당에서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에는 대모(代母) 결연으로 인연을 맺은 이주여성 4명을 초대해 주부교실의 활동을 소개한 후 식사와 함께 연극을 관람하며 타국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위로하는 등 우리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생활 한방과 건강한 삶' 교육 참여 문경시지회(회장: 이영희)는 지난

7월 3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북 자연환경연수원 주관 '생활한방과 건강한 삶'을 주제로 한 교육에 회원 10명이 참석해 건강하게 알찬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활동 및 자연정화활동 실시 영주시지회(회장: 정순옥)는 7월

18일 회원 5명이 하망동 소재 '만남의 집'을 방문해 간식 제공과 함께 청소 및 목욕 봉사를 실시했다. 또한 영주시 서부초등학교 2학년 학생 1명에게 매월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시지회(회장: 김귀련)는 7월 한달동안 매주 월요일 회원 5명씩 한

조가 되어 학산 사회복지관내 장수 식당에서 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에게 반찬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7월 18일에는 회원 10명이 무의탁 노인 시설인 '햇빛마을 요셉의 집'을 방문해 다과 및 음료를 준비해 대접하며 치매예방지도와 레크리에이션으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영양군지회(회장: 박정자)는 7월 6일 회원 5명이 삼삼노인회관을 방문해 간식을 대접하며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고령군지회(회장: 정숙자)는 7월 12일 회원 7명이 장기리 공장주변도로에서 휴지 줍기, 불법 투기한 생활쓰레기 수거 등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했다.

'2007 예천 곤충바이오엑스포' 홍보 예천군지회(회장: 권춘선)에서는

회장 및 회원 5명이 오는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예천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곤충 축제인 '2007 예천 곤충바이오엑스포' 홍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3일 경북도지부를 비롯한 각 시·군 지회 회장 및 임원 44명을 초대해 행사장

견학 등 홍보 도우미 역할을 했다.

이주여성 돕기 바자회 참여 및 한글교육 실시 군위군지회(회장: 김은주)는 지난

7월 2일~3일 회원 3명이 여협 주관으로 열린 '이주여성 돕기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 판매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11일과 18일 군위군 서부면사무소에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 6명을 위한 한글교육을 실시했다.

경상남도지부

우리 농산물 및 축산물 관련 인식제고 교육

도지부(회장: 이인숙)에서는 지난 7월 3일 도지부 강당에서 회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국내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 및 안전성 홍보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소비촉진을 유도해 친환경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또한 18일 도지부 강당에서 우리 축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신뢰성을 확보해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 축산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환경사랑 및 수학 여행

지난 7월 20일 주부대학 회원 100여명이 광양 자연휴양림과 광양항으로 환경사랑 여행 겸 수학여행을 갔다. 자연학습을 통해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장기자랑 시간을 통해 자연 속에서 한마음이 될 수 있었다.



친환경 축산 우수 가공장 현장 견학

7월 23일 회원 45명이 친환경 축산



우수 가공장인 부경양돈(포크밸리)을 방문해 위생적으로 생산되는 육류 가공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고 직거래 구입 등으로 우리 축산물 홍보 및 애용에 앞장서기로 했다.

자연정화 활동

창녕군지회(회장: 최규의)는 7월 6일 회원 15명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이 많은 국립공원 창녕 옥천계곡을 방문해 쓰레기 줍기 및 주변 청소 등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11기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도자대회' 개최

도지부(회장: 김영희)는 7월 7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소극장에서 각계 인사 및 회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기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주 역사

속의 인물 의녀 김만덕의 삶을 현대사적으로 재조명하는 세미나 개최 및 한·미 FTA에 대응하는 소비자 자세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여성 발전 방향 모색과 함께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지도자로서의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세탁요금 적정화를 위한 제안회의

서귀포지회(회장: 강정자)는 7월 13일 서귀포시 여성회관에서 세탁업계 대표와 관련 전문가 및 회원 20명이 모인 가운데 '세탁요금 적정화를 위한 제안회의'를 개최해 세탁요금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이견을 조정하고, 세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부교실게시판

▣ 주부대학 수료식 및 제70기 수강생 모집

본회는 1977년부터 주부들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주부대학을 운영해 지금까지 총 68기에 걸쳐 8,0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제 69기 주부 대학생들이 9월 21일(금) 수료식을 갖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70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개 강 일 : 2007년 10월 8일(월) 10:30
- 교육과정 : 6개월
- 교육시간 : 주 3회(월,수) 10:30~12:00(90분 강의)
- 교육내용 : 여성과 자아성취, 한국인의 열과 문화, 시대 변화와 여성, 소비와 환경, 국제경제와 한국 경제, 지압법, 혼례예법 등 40여개 강좌
- 강 사 진 :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권위자
- 등록기간 : 2007년 9월말까지
- 수 강 료 : 18만원
- 접수 및 문의 : (02)2265-0637, 2265-3627~8

▣ 소비자생활에서 입은 피해 상담 및 구제

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48개 지역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민원상담 피해구제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화 : (02)2273-2485 · 6300, (02)2266-5870

- FAX : (02)2279-9341
- E-mail : nchc01@chol.com
- 홈페이지 : www.nchc.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생 모집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광진구 소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womanpro.org
- 문 의 : (02)3409-1948~9

프로그램	개강일	기간	시간	수강료
취업 및 창업훈련반				
꽃집 경영자 과정	9.6	10주	목 (15:30~18:30)	15만원 (재료비별도)
한자지도사	10.11	3개월	목 (10:00~13:00)	월5만원 (교재비별도)
재직근로자 및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포토샵, 일러스트	9.10	2개월	월, 수 (19:00~22:00)	24만원 (80% 환급)
패턴메이킹 및 의류제작	10.9	3개월	화, 목 (19:00~22:00)	30만원(교재포함) /80% 환급)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				
펠트 취미반	9.4	8주	화 (15:00~17:00)	월5만원 (재료비별도)
드레스 인형 만들기	9.3	3개월	월 (12:00~14:00)	월3만원 (재료비별도)